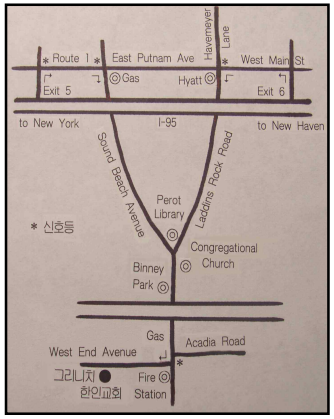
그리니치 한인교회는 커네티컷 남부 그리니치에 자리잡고 있는,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모 임		시 간	장 소	비 고
주일예배	1 부	주일 낮 12시	본 당	말씀 위주로 40분 동안
	2 부	주일 오후 1시	본 당	예배 뒤 점심 및 친교
교회학교	주 일	주일 낮 12:45	교육관	예배 및 성경공부
	주 중	금요 저녁 8시	소예배실	중고등부 리더 훈련
말 씀 과 기 도	말씀나눔	화요 아침 10시	교육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찬양예배	금요 저녁 8시	본 당	찬양, 강해설교, 기도
	기 도 회	토요 아침 6:30	본 당	말씀, 기도, 아침식사



◆ I-95 남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5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우회전 (E. Putnam Ave), 2) 첫 신호에서 우회전 (Sound Beach Ave.) 3) 기차 굴다리를 지난 뒤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West End Ave.). 4) 약 200미터 가시면 왼쪽에 교회가 보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Old Greenwich 건물)

◆ I-95 북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6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직진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 (Harvard Ave.), 2) 첫 신호에서 좌회전 (West Main St. Rt. 1) 하고 두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Laddins Rock Rd.). 그 뒤는 위의 3) 이후와 같음.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주간소식지 발행인: 담임목사 권수경

GREENWICH KOREAN CHURCH
38 West End Avenue
Old Greenwich, CT 06870
(203) 637-8743 (203) 829-1595
Homepage: www.greenwichchurch.net
Email: koreanchurch@optonline.net

Stamp
Here

TO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GREENWICH KOREAN CHURCH
주간소식지 Weekly Newsletter
제 11권 40호, 2010년 11월 25일

북한이 연평도에 폭탄을 날려 네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혼비백산 뛰어다니는 연평도 주민들을 보며 마음을 졸이다가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언론을 보며 장탄식을 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싸움이 난 줄 알았는데 남쪽사람끼리 나누는 대화에도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합니다.

당장 응징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퍼준 쌀이 폭탄 되어 돌아왔다, 햇볕정책을 포기한 게 잘못이다.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세우는 그 말 속에 분노는 담겼으나 인격은 느껴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들먹이는 그 예리한 분석 뒤에 나는 언제나 최종 수혜자로 숨겨 두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국 여자양궁 못지않은 현대사의 수수께끼입니다. 뭘 해도 끝장을 보고야 마는 우리 겨레인지라 공산주의도 그렇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애써 보지만 다시 제기된 핵 위협처럼 실타래는 꼬여만 갑니다. 그런 와중에도 개성공단은 잘 돌아가고 있다 합니다. 연평도에서는 아직 연기가 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을 얼른 다시 하라는 요구가 폭탄 날아온 거기서 날아왔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형제라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일으켜도 때려죽일 수 없는 게 자식이고 형제 아니겠습니까? 예순 해 전에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길어진 까닭인지 이제 남 아니냐 하는 말도 들리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떠오르기만 해도 아직 우리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붕어 두 마리가 살았다 하던 깊은 산 오솔길 옆 그 자그마한 연못처럼 더 이상 아무 것도 살지 않는 슬픈 연못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싸움도 남북한의 갈등도 다 형제간 싸움입니다. 참 큰 숙제입니다. 우리 겨레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 어려운 만큼 보람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우리도 애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이 전대미문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 손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 손길은 분명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이어져 있을 겁니다. 곧 나타날 "하나님의 큰 일"에 나도 한 자락 든다 생각하면 가슴마저 설렙니다.

그러자면 뒤에 숨겨둔 나를 먼저 포기해야겠지요. 저 놈은 죽이고 나만 잘 살아야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접어야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큰 일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손부터 모아집니다.

알림 – 종이 사랑지는 곧 종간됩니다.

지난 주간 소식

지난 주간에도 금요 찬양예배와 토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찬양예배**는 함께 찬양을 드린 다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함께 느끼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이웃의 슬픔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이웃의 즐거움은 또 열심히 깎아내리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무조건 나를 낮춤으로서 함께 느끼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여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토요일의 **새벽기도**는 먼저 디모데전서를 읽고 집사 직분에 대해 묵상하습니다. 집사도 감독에 못지않게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역시 성도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성품인 까닭임을 묵상하였습니다. 감독이 영광스러운 만큼 집사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때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듣는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날도 개인기도 시간을 갖고 이어 맥도널드 아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온 교회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린 다음 추수감사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일예배**는 말씀 교독 및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여 중고등부 찬양 팀 인도로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어 권 목사님, 장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고 잠언을 본문으로 한 장 목사님의 영어설교 "Word! Word! Word!"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성도의 사귐을 가진 다음 권 목사님의 우리말 설교 "가장 값진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주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감사의 제목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대상들에 대한 감사 또한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곧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늘 이어지는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성가대가 감사절 찬양인 "찬양하세 예루살렘"을 불러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어 한인택 교우님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례식의 뜻에 대한 권 목사님의 설명이 있은 다음 한 교우님의 신앙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한 교우님을 위해 함께 기도한 다음 권 목사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인택 교우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교우가 박수로 또 악수로 환영한 다음 다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헌금을 드린 다음 권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귐의 시간에는 터키 대신 등장한 통닭에다 각 가정에서 사랑으로 준비하신 갖가지 음식을 섞어 푸짐한 추수감사주일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잔칫날이라 다른 행사는 다 취소하고 찬양팀이 본당에서 잠깐 연습을 하고 중고등부가 소예배실에서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지난 주일 세례를 받으신 한인택 교우님이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굳건한 성장을 이루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에는 금요 찬양예배와 토요 기도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4) 이번 주 금요일 (26일)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락인**을 갖습니다. 저녁 8시까지 자녀를 교회로 데려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5) 금요일 (26일) 저녁에는 예산위원회가 위원장 한 장로님 댁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산안을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극단 "떡과 백합"은 이승규 교우님 지도로 매주 수, 토 저녁에 소예배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교회 홈페이지가 "www.greenwichchurch.net"으로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기초공사 단계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12월 **사랑방**은 정해진 날짜 없이 각 방별로 의논해 가장 좋은 날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 몸이 불편하신 교우들을 위해 계속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상만 교우님 (천아라 교우님), 김광자 권사님 (지승의 집사님), 필복덕 권사님 (박석남 집사님), 박재실 권사님 (박상원 교우님), 목정수 집사님, 이귀애 권사님 (배종순 집사님)을 기도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